

###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 “올 1천톤 수출하겠다”



수출되는 성주참외. 사진=성주군

#### 성주군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소비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의 수출을 시작한다.

지난해 성주군은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을 대상으로 수출 실적 역대 최고치 500톤을 달성했다. 올해는 신규해외시장 태국, 대만, 몽골 까지 개척해 1000톤을 목표로 어려운 상황을 전면적으로 돌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가장 여건이 좋아 참외 당도는 기존보다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아삭거리는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세계인들의 입맛을 잡을 예정이다.

또 ‘황금과일 성주참외’는 비타민 C, 칼륨, 철, 아연 등이 많아 피로회복, 피부개선에 효과적이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는 제격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참외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탁 기자 sking12@meconomynews.com

## 청송군 “사람-자연 공존하는 정주기반 조성하겠다”

### 124억원 투입해 343건 농로포장 군민이 살맛나는 선순환 경제 구축

#### 올 도시·경제 시책 발표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도시·경제 분야의 균형 추진방향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주기반 조성, 군민이 살맛나는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으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행복청송 건설,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낙후된 시가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시·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시책을 마련했으며, 이는 향후 행복청송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행복청송 건설을 위해 소규모주민속원사업에 124억원을 투입해 343건의 농로포장, 세천정비, 배수로, 소교량 개체 등을 추진한다.

또 청송읍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으로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옥외간판을 정비함으로써 경관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정주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다.

둘째,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청송읍, 진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시계획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주민의 정주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청송읍 4지구, 진보면 6지구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사유재산 보호를 통한 토지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송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군 계획시설 등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도시재생을 통한 낙후된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의 쇠퇴 원인 및 배경을 진단하여 청송·진보 지역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 등 청송군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기반을 확충해 정주환경·문화·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끝으로 군은 올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초부터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해 유통하



청송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초부터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사진=청송군

고 있다. 지역 자급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청송사랑화폐’는 타 지자체의 상품권과는 차별화된 지역화폐로서 가맹점 없이 청송의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었고 관내 모든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판매되고 있다. 연간 80억 규모로 발행되며, 출시한 지 2개월 남짓이지만 벌써부터 지역에서 청송사랑화폐가 돌고 돌아 상권이 살아나면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또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도 앞장선

다.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전통시장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보기 배송 서비스 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근로사업에 8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 방지와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사업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중심의 생활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건설 및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활기찬 청송을 만들겠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송사랑화폐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반기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탁 기자 sking12@meconomynews.com

## 경북도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 출격”

### 소재·부품·장비 집적·거점지로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 현판식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구미 한국산업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 구미스마트 산단 사업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미시장, 산단공부이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단장이 ‘구미스마트산단 비전 및 추진목표’를 발표하고 스마트제조 혁신센터장의 ‘구미형 스마트 제조혁신 구축전략’ 발표에 이어 현판식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9월 구미 산단이 스마트산단 공모에 지정된 이후 올해 1월 사업단이 구성되고, 스마트사업단 단장이 선정

되는 등 차분히 사업단 출격이 준비돼 왔다.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은 기존 사업에 ICT·지식서비스산업을 융복합시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제조공정과 제품의 첨단화도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산단내 편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기술창업과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미 국가산업단지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쾌적한 근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 친환형 조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구미형 일자리 등과 연계한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이 추진되는 대형 국제 사업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국가공모에 선정된 후 사업의 실현을 담당할 사업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의 혁신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 2층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경북도, 구미시 및 경북테크노파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금요공대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장, 부단장, 3팀 11명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을 꾸렸다.

사업단은 당초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스마트산단 표준모델을 토대로 기업체, 혁신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세부실행계획을 올해 5월중으로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산단 전체의 제조업 생태계를 스마트화해 제조업 경쟁력의 원



구미 한국산업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 구미스마트 산단 사업단 현판식 장면. 사진=경북도

천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집적지로서 제품 국산화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이로써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첨단산업단지로 변화시켜 경북은 물론 한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승탁 기자 sking12@meconomynews.com

##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 완화’ 채택됐다 경북도 ‘민생규제 혁신’ 4개 과제 선정돼

경북도에서 발굴·건의한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 완화’등 4개 과제가 20일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선정됐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19년도 지역주민·기업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건의한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한다.

분야별로는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된다.

이중 경북도는 50건중 4건이 선정됐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다. 먼저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 닥터헬기 이착륙 장소가 확대됐다. 기존 논밭 인근에 닥터헬기 이착륙장(인계점)을 조성해 농작물 피해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착륙 허용 및 비인계점 착륙시 상호 협조가 의무화 되도록 개선했다.

강승탁 기자 sking12@meconomynews.com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2020 새로운 출발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